

전통 燈에 일상의 발원을 담아

탑골미술관 전통등 전시회 4월 30일까지

불교에서 빛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불자들은 자신의 발원을 담아 등을 켜다. 지혜의 등 소망의 등은 희망을 밝히며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연등 축제를 한달여 앞두고 도심에서 전통등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유가) 주최하는 '전통등 전시회'가 4월 30일까지 탑골미술관에서 열린다.

'일상의 소망을 담아 희망의 불을 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절집의 사물, 봉황, 부엉이, 새우 등을 작품으로 표현한 2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전시장 중앙에 전시된 범종, 운판, 목어, 법고는 만인(하늘·물·땅·생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절집의 사물이 위치해 있다. 종은 삼라만상을 운판은 날짐승을, 법고(法鼓)는 땅 밑의 중생을, 목어는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킨다는 의미를 전해줄 것이다.

탑골미술관 관장 최유가(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는 "절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등으로 표현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요즘 크고 화려한 등축제가 많지만 이번 전시는 전통 등이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공동체적 희망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일상 속에서 품고 있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최하는 '전통등 전시회'가 4월 30일까지 탑골미술관에서 열린다.

사물등·주마등 20여 작품 전시 '나만의 소원등 만들기' 전시 체험도



주마등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상징한다.

주마등도 주목할만하다. 등 한가운데에 가는 대오리를 세우고 대 끝에 두꺼운 종이로 만든 바퀴를 붙인 다음, 네 개의 말 형상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종이 바퀴를 돌게 구성되어 있다. 주마등은 세월의 빠름이나 어떤 사물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며 인생의 회한을 담아낸다.

이밖에도 불교의 상징인 연꽃등,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봉황, 자손 번영을 상징하는 새우, 장수의 상징 거북을 등으로 표현한 작품을 통해 전통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전시기간 동안에는 '나만의 소원등 만들기'의 전시 체험도 이어질 예정이다. (02)6911-959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세계적 거장 '이우환 공간' 부산에 등지 들어

불교의 공사상 등 동양적 메시지 전해

부산시립미술관(관장 조일성)은 4월 10일 이우환 작가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우환 공간'을 개관했다.

이우환 작가는 그동안 여백이 주는 아름다움 등 불교를 비롯한 동양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선보여 세계 화단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또한 그는 최근 4년간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낙찰 총액 기준으로 생존 작가 중에서 40위권을 기록할 만큼 세계적인 거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부산시는 이우환 작가가 중학교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인연을 소중히 여겨 '이우환 공간' 건립했다. 1층 전시관은 '관계형' 등의 조각작품이, 2층 전시관은 '대화, 향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바람과 함께' 등 회화작품이 주를 이루며 야외 전시관에도

두 점의 설치작품이 전시돼 1960년대 초기부터 2015년까지 등 총 2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개관식에는 김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물론 알프레드 파스트만 전 프랑스 국립 공피두센터 관장, 크리스틴 스타크만 미국 휘트니 미술관 큐레이터, 드리크리 오제르코프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 큐레이터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우환(1936~)은 서울대 미대를 중퇴하고 1956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전위 예술운동인 모노하(物派)의 이론과 실천을 주도하며, 벨기에 왕립미술관, 파리 공피두센터, 베를린 국립 미술관 등 세계 주요



부산시는 부산시립미술관에 '이우환 공간'을 건립했다.

미술관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진 바 있다.

2011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회고전 '이우환: 무한의 제시'를 개최했고, 2014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규모 조각 전시를 가졌다.

정혜숙 기자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妄語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 구하라

(망어)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서복(고아성 분)은 재개발 지역을 사는 평범한 소시민 집안의 딸이다. 한때는 중산층이라 말할 수 있었으나 아버지가 재개발 지역 건물을 잘못 사 빚만 남으면서 하층민으로 전락한다.

그런데 어느날 봄이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임신하고 말았다. 영어를 잘했고 친구들에게 제법 인기도 많았던 평범한 여학생 봄. 차마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어 미혼모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인상(이준상 분)이 나타났다. 그간 봄이의 사정을 전혀 몰랐던 인상은 임신해 막고생 했을 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봄의 손을 잡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영업자를 하는 평범한 집안의 아들인 줄 알았던 인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 '한승'의 아들이었다.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는 가난한 집안의 딸 봄이가 출산을 하고 부유층의 집안과 합류하는 이야기로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반복되는 신데렐라 구조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지만 '풍문으로 들었소'는 풍속의 구조를 비튼 유쾌한 풍자 드라마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른바 갑질을 하는 상류층의 삶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풍문'을 통해 가진 자들의 위선과 허영을 꼬집고 비웃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봄이가 인상의 집에 인사를 하러 온 날 출산이 임박하자 다급하게 불렀던 119구급대를 돌려보내고 가장 출산을 감행하는 장면이다. 그 모두가 소문이 날까 두려워해서였다.

이들 풍문의 근원지는 바로 송재원(장호일 분)이 운영하는 프라이빗 와인바다. 인상의 모 최연희(유호정 분)와 사립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친구들이 이 와인바에 모여 주고받는 대화들은 단순하지 않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아한 말투로 수다를 떨지만 말 안에는 뼈가 있어 서로의 자존심을 긁고 열등감을 자극해 욕망



'풍문으로 들었소'는 풍속의 구조를 비튼 유쾌한 풍자 드라마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난한 집 딸과 상류층의 만남서 소문에 죽고 사는 위선자들 조롱 말은 인간의 욕망 자극하는 촉매제 구업 경계하고 참회 가르침 되새겨 청각 능력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을 확대재생산해 나가며 소문에 소문을 만들어낸다.

이미지에 죽고 이미지에 사는 이들에게 소문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무결점의 귀족으로 살기 위해 나쁜 소문은 막아야 하고 좋은 소문을 만들어 내야 한다. 때문에 인상의 부 한정호(유준상 분)는 그토록 반대하던 불교 인상의 관계를 진정 사랑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순애보의 커플로 포장해 주었고 손자의 돌잔치에서는 거액의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노블레스오블리주 삶의 만방에 알린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풍문은 그들을 힘들게 한다. 사돈처녀의 스캔들, 불순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돈댁의 단순무식한 반항, 그리고 지영라(백지연 분)와 연희의 남편 한정호의 스캔들 등 끊임없이 소문을 통해 욕망을 자극하고 불만을 일으켜 사건이 일어난다.

불교에서는 구업을 가장 경계하라고 충고한다.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망어(妄語), 거어(綺語), 양설(兩

舌), 악구(惡口)를 경계한다. 즉 거짓말, 발림말, 이간하는 말, 악담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세치 혀의 힘은 엄청나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으로 시작하는 <천수경>은 '망어중죄금일참회, 기어중죄금일참회'를 통해 불자로서 자신의 구업을 돌아보고 참회하라고 가르친다.

허망한 말 때문에 선악의 구분이 일어나고 좋고 나쁜 것도 일어나며 후회와 자책이 일고 비난과 질타가 생긴다. 그래서 스스로의 말을 참회하고 돌이키고 신중하게 말하되, 말의 한계성과 허무함을 깨달아 세상의 말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암과따라 니까야>에서는 '청각으로 소리를 듣더라도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연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청각 능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을 원인으로 탐욕과 불만의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 공격할 것이다. 때문에, 그렇게 청각 능력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청각 능력을 보호하고 청각능력을 수호한다'라고 말한다.

풍문에 죽고 풍문에 사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충고가 아닐 수 없다. 풍문이 두렵다면 이제 그 풍문이 빚어내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고 수호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하지 않을까? 정혜숙 기자



'갑질'을 하는 상류층의 삶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풍문'을 통해 가진 자들의 위선과 허영을 꼬집고 비웃는다.

자연산 구지뽕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1억이상 가능!!

- 구지뽕 나무는 잎파리, 가지, 열매, 뿌리 등 전체를 건강식품,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고혈압, 당뇨, 근골강화, 면역력 증진에 특효)
- 최고 소득 작물로써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3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500년 이상도 가능)
-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으므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호도나무입니다.

▶3년생 7,000주 ▶5년생 5,000주 보유중

개복송아 묘목분양 (1년생)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숙기, 발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 한번 심어 놓으면 150년이상 수확 (300년 가능)

※ 전국 최대 묘목 보유! (50주이상 주문 부탁)

구입문의 010-9608-2356(충주농원)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매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하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활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 ◆ 강의 일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 ◆ 강의 내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 ◆ 접수 인원 : 선착순 8명 이내.
- ◆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 1 강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 2 교재 :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 3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 4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 5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액 상담
- 6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출연한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찬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중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